

## ‘이누야마 도자기의 역사와 특징’

### 이누야마 도자기

우라쿠엔에서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누야마 도자기 찻잔으로 차가 제공됩니다. 19세기 초, 이누야마 성주가 지역의 도자기 가마모토(도자기를 굽는 곳) 설립을 지원하며 숙련된 도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작풍과 제조법의 변화 속에서도 이누야마시에 있는 3개의 가마모토는 변함없이 전통적인 기술과 디자인의 찻잔, 꽃병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 초기의 이누야마 도자기

이누야마시 이마이지구에서 처음 도자기가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중후반이었습니다. 초대 가마모토 주인인 오쿠무라 덴자부로(奥村伝三郎)가 미노국(현재의 기후현 남부)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마이야키라고 불리는 오쿠무라가 만든 도자기는 광택이 있는 갈색 유약을 바르며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박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81년에 3대째가 세상을 뜰 때까지 그의 후계자들이 이마이무라(今井村)의 도자기 가마(가마모토)를 지켜왔습니다.

1810년, 시마야 소쿠로(島屋宗九郎, 연대 미상)라는 지역상인이 이 지역의 도자기 생산 부흥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누야마 성주인 나루세 마사나가(成瀬正壽, 1782-1838)에게 탄원하여 마루야마 지구에 도자기 가마를 여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누야마 도자기의 시초입니다.

처음 10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1817년에 새로운 가마모토 주인이 가마를 계승했고, 1822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도공이 찾아왔으며, 근처의 세토나 시다미에서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1831년까지는 이 지역 장인의 염부(染付, 도자기 제작기법 중 하나)와 아카에(빨간색을 기조로 한 그림. 넓게는 도자기를 뜻하며, 중국에서는 '오채(五彩)'라고 부른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뻐한 마사나가는 1836년 가마모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2년 후에 마사나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뒤를 이은 나루세 마사즈미(成瀬正住, 1812-1857)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누야마 도자기의 가장 인기 많고 특징적인 디자인이 된 벚꽃과 단풍을 조합한 ‘운킨데(雲錦手)’ 제작을 가마모토에 의뢰했습니다.

이누야마 도자기는 그 후에도 새로운 가마가 생겨났고, 도예가가 그림 기법과 디자인 기술을 연마하면서 계속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초 폐번치현과 메이지시대(1868-1912)로의 이행과 함께 도자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 근현대의 이누야마 도자기

이 중단에도 불구하고, 약 10년 후 이누야마 도자기 생산은 재개되었습니다. 1883년에 이누야마 도자기 회사가 설립되어 많은 장인들이 (때로는 같은 가마에서) 일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891년에 있었던 노비 지진으로 가마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회사는 해산했지만 몇 명의 장인이 이누야마 도자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와 제조로 전환해야 했던 가마모토도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급 도자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누야마에서는 현재도 오제키사쿠주로토보, 고토토이쓰토엔, 오사와큐지로토엔의 3곳에서 전통적인 디자인의 찻잔, 꽃병, 풍경 등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아카에(빨강과 녹색)의 디자인과 운킨테의 모티브는 금색 액센트와 비단벌레색 메탈릭의 소용돌이 무늬, 질감이 있는 유약을 입힌 작품과 함께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라쿠엔에 있는 가게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이누야마 도자기 고급 찻잔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마모토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작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